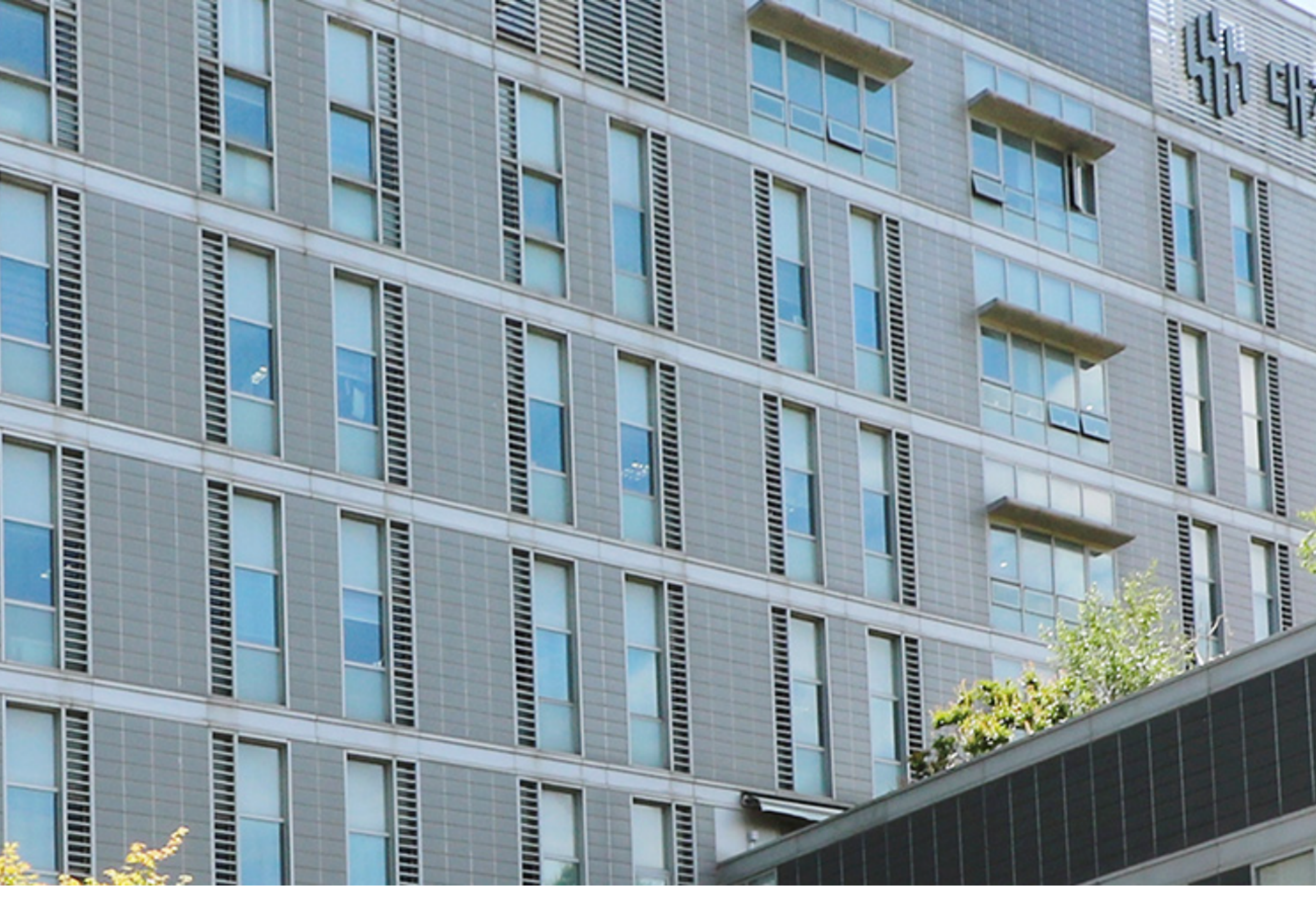


생생 진료실

세계적인 트렌드, 통합암치료로
환자 맞춤형 ‘한국형 모델’ 제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일반적으로 암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수술을 통한 병변의 제거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서양을 중심으로 암 치료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보다 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대세다. 그중에서도 통합의학에 기반한 통합암치료는 한의약, 식이요법, 침구치료 등 대체보완요법과 현대의학을 결합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환자 중심의 ‘한국형 통합암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암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외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치료 프로세스를 고안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통합암치료 프로그램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전경(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제공)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 기존의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근절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한 경우가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를 포기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한의학 기반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상진단과 혈액검사 등 현대의학적 진단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세밀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를 통해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의과와 한의과 협진, 식이상담, 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가 제시하는 이러한 암치료 방식은 ‘수레바퀴 암치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레바퀴 암치료법은 한의학에 기반을 전인적 암치료법으로 이미 20년 이상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항암효과를 증진하고,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치료법 적용으로 환자의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킨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 환자는 더 나은 항암효과를 볼 수 있다. 환자의 치유력 향상을 통한 선순환적 암치료는 기존의 항암치료 후 유발되는 부작용에 특히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더불어 한의 항암약물, 면역 및 온열요법을 통해 기존의 치료 후 암의 전이나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 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적용한 통합암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효과적를 본 분야는 여성 유방암에 대한 치료다.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한약과 침, 운동요법을 병행한 통합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피로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임상 결과로 확인되었다.

고주파온열치료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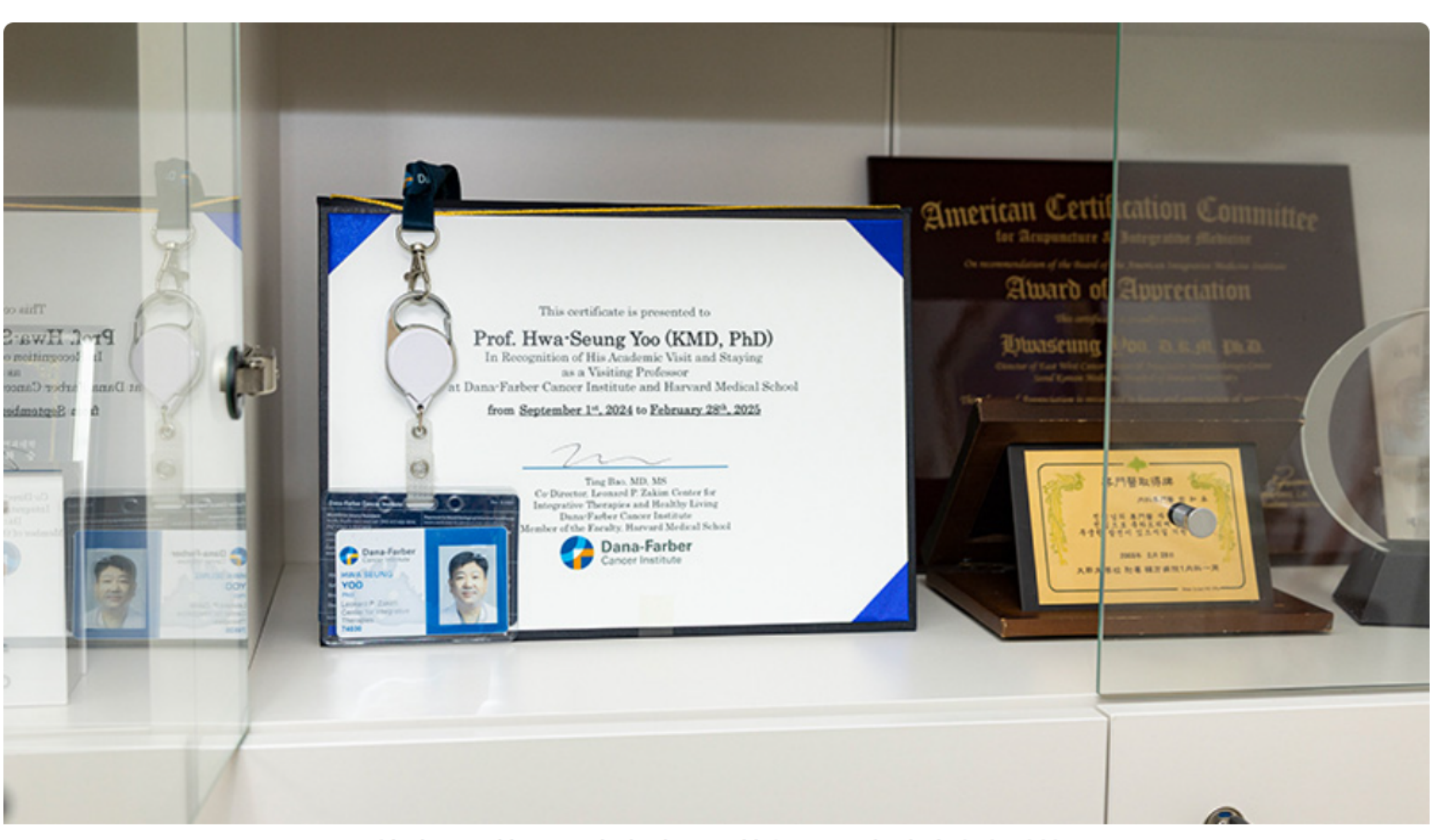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내 통합의학의 혁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1991년 개관하여 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암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높은 수준의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세계 유수의 암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암치료 프로그램의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암환자 치료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Dana-Farber) 암병원의 자킴 센터(Zakim Center)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하버드의 통합암치료법을 직접 확인하고 온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는 미국에서의 통합암치료 경험을 통해 국내 통합암치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통합의학, 통합암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암센터나 대학병원 내에 통합의학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는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NCCIH)가 따로 운영될 정도로 공공 영역에서도 통합암치료에 대한 지원이 활발합니다.”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병원 자킴 센터의 통합암치료를 위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근거 기반치료, 환자중심 접근, 다학제 팀 협력이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치료기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사, 한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협업하여 환자 개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통합암치료법으로는 침 치료, 운동 요법, 요가와 명상, 식이요법, 한약 및 보조제가 주로 적용된다.



This certificate is presented to
Prof. Hwa-Seung Yoo (KMD, PhD)
In Recognition of His Academic Visit and Staying
as a Visiting Professor
at Dana-Farber Cancer Institute and Harvard Medical School
from September 1st, 2024 to February 28th, 2025

Ting Bao, MD, MS
Co-Director, Leonard P. Zakim Center for
Integrative Therapies and Healthy Living
Dana-Farber Cancer Institute
Member of the Faculty, Harvard Medical School

Dana-Farber Cancer Institute
HWA SEUNG YOO
American Certification Committee
for Acupuncture & Integrative Medicine
Award of Appreciation
Hwaseung Yoo

하버드 교환교수 당시 받은 유화승 교수의 임명장과 명찰

LEONARD P. ZAKIM CENTER FOR
INTEGRATIVE THERAPIES AND HEALTHY LIVING

미국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병원의 자킴 센터 교환교수 유화승 교수(가운데)와 중국 팅 바오(오른쪽), 밍 샤오(왼쪽) 교수

보다 건강한 암치료를 위한 국내 통합암치료학계의 노력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병원 자킴 센터의 통합암치료법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도 대부분의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합의학과 통합암치료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 유화승 교수는 국내 통합암치료의 현실에 대해 “보험체계, 의료법, 협진 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진정한 ‘통합’이 아닌 병렬적 치료에 머무는 경우도 많아, 정책적 뒷받침과 연구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통합암치료는 한의약이 과학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근거 기반의 치료법을 바탕으로 하되, 환자의 체질과 생활 습관, 심리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한의학의 고유한 철학을 유지하며, 현대의학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 삶의 질과 전인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는 암 전문 치료센터로 거듭남으로써, 한국 통합암치료의 표준을 제시할 전망이다.